

폐결핵 치료후의 폐기종

이정희/한양대학병원 내과과장

●●
폐기종의 임상증상은 점진적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객담은
기관지염과는 달리 묽은 흰색
가래가 소량 배출된다.
체중감소가 현저하고 청진
소견상 특별한 호흡음이 잘
들리지 않고 조용한 것이
특징이다. 간혹 호기 말기에
천명이 들리기도 한다.
●●

폐기종의 정의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조직학적인 개념이나 실제 임상적으로는 흉부 X선소견과 폐기능검사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이다. 폐기종은 종말 세기관지 이하의 영구적인 확장소견이 있고 폐포벽이 파괴가 되어 폐포와 세기관지의 형태를 유지시키는 힘인 탄성반도압력이 저하되어 호기시에 폐포내의 압력이 양압이 되면서 주위에 폐포내의 공기가 출구인 세기관지를 눌러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비가역적인 기도 폐쇄가 오는 질환이다.

폐기종은 조직병리 소견에 따라서 어느 부위가 확장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나 그 외에도 결핵이나 유육종, 폐렴 등을 앓고 난후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오는 폐기종은 반흔 주변성 폐기종이라 한다. 다른 종류의 폐기종 원인으로서는 객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기오염도 중요한 인자이다. 오래 전 서구에서 잘 밝혀진 것 중에 인체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인자의 결핍으로 인해 폐기종이 생기는 것의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분해효소 억제 인자를 만드는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서양에서는 전 인구의 약 0.06%라고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진단은 보통 흉부단순촬영으로 알 수 있는데 양폐엽에 결핵을 앓은 환자를 장기간 추적한 흉부 X선사진을 보면 항결핵요법을 실시 후 객담결핵균검사에서 균이 나오지 않고 폐침윤이 흡수되고 섬유화 음영이 보이면서 특별한 치료는 없

이 지내게 된다. 이 환자가 대개 7년 내지 10년후에 폐결핵이 새로 발생한 병변은 보이지 않으나 상기도감염후에 심한 호흡곤란으로 입원하게 될 때 흉부 X선 사진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 치유된 흉터가 상엽에게 결핵으로 파괴되어 섬유화가 되며 위쪽으로 끌어 올라가게 되며 하엽을 보면 폐염증이 감소하게 된 것을 보게된다. 폐의 기포형성, 폐의 주변 부위에 폐혈관 음영이 감소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폐문부위에는 폐혈관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데, 이는 폐동맥압이 증가되어 나타난다. 횡격막의 선이 편평해지고 종격동의 구조가 수직으로 서게되고 흉곽의 앞뒤의 직경이 증가한다. 폐기능검사 소견은 진단 및 예후판정, 치료효과 판정에 필요한 검사이다. 폐기능검사에 특장적인 소견은 호기시에 흡입된 폐내의 공기가 배출되는 속도의 감소를 보인다.

최대로 공기를 흡입한 후 처음 1초동안 내뿜은 공기 양이 정상보다 떨어지게 된다. 기관지 천식에서는 이 수치가 떨어지나 기관지 확장제를 쓰면 정상에 가

깝게 회복될 수도 있으나 폐기종이 있는 경우는 확장되지 않는 비가역적인 변화가 특징적이다. 총 폐용적도 현저히 증가하며 잔기 용량도 현저히 증가되어 폐에 많은 양의 공기가 항상 차있게 된다. 현재 사용되는 진단방법중 가장 결정적인 진단은 흉부컴퓨터단층촬영으로 폐기능검사 소견과 함께 진단에 도움을 준다.

폐기종의 임상증상은 점진적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객담은 기관지염과는 달리 묽은 흰색 가래가 소량 배출된다. 체중감소가 현저하고 청진 소견상 특별한 호흡음이 잘 들리지 않고 조용한 것이 특징이다. 간혹 호기 말기에 천명이 들리기도 한다.

치료는 주로 저산소증과 폐동맥 고혈압증, 호흡부전에 대해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저산소증이 있으면 호기를 더욱 힘써서 할려고 하므로 세기관지는 더 막히게 된다. 이런 경우 저산소 장기요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후 및 생존율에 많이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호흡부전에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는 감염을 받아 생기는 경우가 있다.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철저히 치료를 해야한다. 폐기종의 근본 치료는 현재까지는 없고 대증적 치료를 하게 된다. 부신피질호르몬제는 만성기관지염이 같이 공존하지 않는 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성기관지염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만성기관지염에 대한 치료 즉 기관지확장제, 진해제, 항생제를 같이 써주면 된다. †

